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韓 7연패엔 ‘IT·목공예’가 있었다

금 18개, 은 4개, 동 9개 획득 종합우승  
34개 직종 출전해 31개 직종 입상  
尹 대통령 “강인한 의지·열정 쾌거”

우리나라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통산 8번째 우승이자 7연패 금 자탑을 쌓을 수 있었던 데는 정보기술(IT)과 목공예 분야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한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들의 정성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수 여러분이 최고의 기술 기량을 연마하고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치하했다.

27일 고용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 22~25일 프랑스 메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8번째 우승이자 7연패다. 2위는 프랑스, 3위는 대만이 각각 차지했다.



프랑스 메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7연패 달성이자 통산 8번째 우승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번 대회에는 27개국 420명의 선수가 참가해 44개 직종에서 경기를 펼쳤다. 한국은 34개 직종에 국가대표가 출전해 31개 직종에서 입상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IT 분야에서 총

10개 직종 중 컴퓨터수리, 프로그래밍, 데이터 처리 등 8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목공예 직종은 4회 대회부터 9회 대회까지 연이어 금메달을 따내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다.

이밖에 제과 직종, 가구제작, 귀금속 공예, 육내제어, 용접, 전자출판 등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우리나라는 1981년 제1회 일본 도쿄 대회를 시작으로 이번 프랑스 메스 대회까지 10차례 모두 참가해 종합우승 8회, 제4회부터 제10회까지 대회 7연패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장애인기능올림픽의 성과가 많은 장애인 근로자 및 구직자 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조항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도 “34명 국가대표 선수들의 불타는 투지와 기술위원 등 지원 인력의 노고가 합쳐진 우리 모두의

승리”라며 “선수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열정과 능력을 우리 사회를 위해 마음껏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종합우승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여러분의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이뤄낸 쾌거는 국민들께 큰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을 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회원국 간 기능 교류를 통한 장애인 기능수준 향상 및 기능 개발 촉진을 위해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시작됐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연합(International Abilitympic Federation)’ 주최로 4년마다 열린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주 69시간 “집중 단속·감독” vs “폐기하라”

(고용장관)

(노동계)

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여부도  
근로시간 노정 간 갈등 지속될 전망이다

‘주 69시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장시간 노동 관련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부도 집중 감독한다. 노동계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폐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근로시간 관련 노정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모든 정기·수시 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화감독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도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폭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집중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여전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가 많다”며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근로자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의식·관행 개선이 동반돼 야만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며 “법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 현장에 법

치를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한 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관이 할 일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이 선부른 정책이었음을 시인하고 폐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선 담당자들에게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지시하는 것은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25일 서울 도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왼쪽으로부터 5번째)이 상하이밍 주한중국대사(6번째) 등 참석자들과 테이프커팅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 김포~베이징·상하이 3년 만에 운항 재개

다싱 노선 신규 취항 도심 접근성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의 수도를 도심에서 바로 연결하는 김포~베이징 항공노선과 중국 경제수도를 연결하는 김포~상하이 노선이 3년 만에 운항을 전면 재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7일,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한·중 노선 운항 재개를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포~베이징 노선은 대한항공·아시아항공·중국국제항공·중국남방항공 4개 항공사가 26일부터 취항해 각각 주 7회, 총 28회·56편 운항하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 직전 개항

(2019.9.)한 베이징 다싱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김포~베이징 다싱 노선이 신규 취항해 서울과 베이징을 잇는 도심 접근성이 더욱 향상된다.

김포~상하이 홍차오공항 노선은 대한항공·아시아항공·중국동방항공·중국상해항공 4개 항공사가 각각 주 7회, 총 28회(56편)를 운항해 김포공항의 중국노선은 총 56회·112편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운항 수준을 회복했다.

공사는 베이징과 상하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 1명에게 왕복항공권을 증정하고 중국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웰컴 키트를 선물하는 등 탑승객들과 함께 운항 재개를 축하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KOTRA ‘바이어 다시 만나기’ 수출 플러스 속도 ↑

KOTRA(코트라)가 최근 정부의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어 다시 만나기’ 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코트라에 따르면 ‘바이어 다시 만나기’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과 끊어진 바이어를 재연결하고, 수출거래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수출 가능성이 큰 국내기업과 바이어는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수출 성약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바이어 다시 만나기’ 사업은 국내기업과 해외 바이어의 수요를 양방향으로 연결한다.

/양성운 기자 ysw@

## 중기중앙회, 혁신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조합당 사업비 80%·최대 1억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

2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다만 조합원 가운데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엔 제외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해 마감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기중앙회 ‘공동사업SOS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 유성케미칼 집단 ‘급성중독’... 정부 ‘뒷북’

고용부, 세척제 사업장 5월 집중감독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무더기 ‘급성중독’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뒷북’ 감독에 나서도 마 위에 올랐다. 올해 초 유성케미칼 제조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한 노동자 29명이 급성중독됐고, 2월 두성산업 16명, 3월 경기도 이천 제조업체 7명 등이 연이어 급성중독 진단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트리클로로메탄’ 등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척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고농도 노출 시간 기능 손상을 일으

킨다.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에 기반을 둔 선(先) 자율개선, 후(後) 집중 감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4월까지 자율개선 기간을 주고, 5~6월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자율개선 기간에는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000곳에 감독 계획, 재해 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최대 5000만원) 등을 안내해 예방 조치를 유도한다.

이후 5월부터는 세척제를 사용하는 약 300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세종=원승일 기자